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3

어느덧 봄 학기가 모두 끝나고 방학을 맞게 되었습니다. 계절학기를 가르치고 있는 나는 방학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든 것을 보면 방학은 방학인가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보람차고 멋진 방학을 보낼 계획은 세워 놓으셨겠지요? 대학 1학년 때 남해안에 있는 친구 고향집에 놀러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군요. 은하수가 굽이치는 밤하늘을 보면서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던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훈훈해 옵니다. 이 값진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지 말고 좋은 추억거리가 될 일을 많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낭만과는 거리가 먼 조금 삭막한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성적을 고쳐 달라고 떼를 쓰는 학생들을 돌려보내느라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번 준 학점은 채점과정의 오류가 없는 한 바꿔주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요청을 야박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를 할 때는 매일 웃는 낯으로 보던 학생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내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더군다나 ‘읍소작전’까지 벌이면 돌려보낸 뒤에도 한참 동안 우울한 무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감동되어 학점을 상당히 후하게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공부에 쏟는 노력은 예전의 학생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시험 성적이 예전보다 월등하게 더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노력 하나만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두쇠처럼 아끼던 A^+ 를 아낌없이 내주었고, 과거의 A, B 를 합친 숫자만큼의 A 를 뿌려대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면 대략 진실과 가깝다는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학점을 올려 달라는 요청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년에는 졸업이나 취업에 문제가 있다는 등, 장학금이 잘린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학점을 올려달라고 매달리는 학생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나를 찾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청한 것은 B 학점을 C^+ 로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수강 규정이 바뀐 후 보게 되는 새로운 풍속도인 셈이지요. 얼마 전 재수강 규정이 바뀔 때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한 바 있었는데, 많은 교수들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예상이 그대로 현실화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학점 문제로 내 연구실을 찾아온 학생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내 행동을 개인적인(personal)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원칙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요청을 거절하는 나 역시 무척 곤혹스러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뜻 들어주면 나도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말이 나온 김에 대학생활에서 학점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케케묵은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내 의도는 아닙니다. 사실 이 말에 어느 정도의 진실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너무나 잘 써먹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상해 있을 것을 생각해 이 말을 다시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창회에 가보면 정말로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예언 한 마디만 해두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에 비해 여러분들이 학점에 대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솔직히 말해 학점이 무엇이든 취직 걱정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지금은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심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학점이라도 잘 따두자는 풍조가 생길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학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학점에 대한 과도한 관심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많은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우선 인생에서 학점이 생각만큼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취직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데 좋은 학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굳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취직이나 유학이라는 관문만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학점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학점을 죽을 때까지 달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사업하고, 집 살 때 학점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취직이나 유학과 관련해서도 학점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겠습니까? 학점이 나쁘다면 다른 것으로 메울 방법이 얼마든 있는데 왜 학점에만 그렇게 목을 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결과 좋은 학점을 받는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요. 좋은 학점 받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더 중요한 공부를 하지 왜 학과 공부에만 매달리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런 말에 전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공부만 열심히 해도 무척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을 실제로 써먹게 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과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내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오로지 좋은 학점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몇몇치 못한 일들을 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제자가 한국 학생들의 수학실력이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표를 보면 여러 수학과목에서 모두 A학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학점을 받고도 실력이 형편없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실력을 쌓은 결과가 아니라, 기출문제 구해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A학점을 받은 탓 아닐까요? 그렇게 받은 A학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강의에서도 학생들이 학점을 올리기 위해 정정당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주는 영문 Reading과제의 부담이 무겁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팀을 짜 각자 $\frac{1}{n}$ 만큼의 분량을 읽고 요약한 것을 돌려 본다고 하더군요. Reading이란 실제로 자신이 읽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요약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아예 내가 그 내용을 요약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왜 원문을 읽어보라고 권하겠습니까? 오직 좋은 학점을 얻으려는 일념에서 자신에게 독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강의 내용이 아니라 좋은 학점을 주느냐의 여부가 수강신청의 기준이 되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강계획을 짤 때 약간의 '전략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을 보면 얼마나 학점이 후한지가 수강신청의 유일한 기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학점을 얻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셈입니까? 너무나도 뻔한 말이지만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 강의를 들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학점을 받은 다음 몇몇 학생이 취하는 태도는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나쁜 학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취업이나 장학금 등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니 학점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그 때마다 내가 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으면 왜 진작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학점을 받으려 하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성숙한 인간이라면 자신이 처한 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알맞은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베짖이처럼 방만한 생활을 하다가 사정이 급하다고 학점을 구걸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수강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조금만 나쁜 학점을 받아도 곧장 재수강을 하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여차하면 재수강하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듣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재수강이란 것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비용이 들지 않는 행위일까요? 재수강의 기회비용을 조심스럽게 따져 보기 바랍니다. 그 시간과 노력으로 다른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평점의 증가폭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도 C 나 D, F 같은 학점을 받고 재수강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 B 학점이 불만 이어서 재수강을 하겠다고 무리수를 두는 모습은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B 학점을 C 학점으로 낮춰달라고 말하는 학생의 표정을 보면 마치 나하고 흥정이랄도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스스로 낮은 학점 받았다는 데 뭐 잘못된 일이라도 있느냐는 표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학점을 높여주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학점을 낮춰주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도 말입니다. 원칙이란 것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려도 좋은 것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학점을 얻고 싶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 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의 학생이 벌써부터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몸에 익으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의 학점 변경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요구에 응해주면 여러분이 당장은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가르친 결과를 빚게 됩니다. 적당히 요령을 부려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교훈을 주는 셈이니까요.

일단 어떤 강의를 듣기로 결심하면 단 한 번에 끝낼 생각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하면 낙제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나쁜 학점 받는 사람들은 출석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도 나쁜 데다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기까지 하면 낙제점을 면하기 힘들지요. 그러니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일단 출석은 성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공부하기가 영 어렵다고 느끼면 서슴없이 교수나 조교를 찾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교수의 눈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어떤 학생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학점은 형편없이 나오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나는 그것이 머리 탓이라기보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거나 기초가 부족한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도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발견하든 선배들에게 충고를 들든 적절한 요령을 터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현재 수강하는 과목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 계획을 세워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출석하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C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면 그것에 만족하기 바랍니다. 설사 A 학점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있어 낮은 학점을 받은 것이니 어느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지요. 학점은 어차피 상대적 관점에서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결심 하나만 세워 놓으면 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학점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낮은 학점을 받았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 학점에 연연해 쪼그라든 채 생활하지 말고 정말로 보람 있는 대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학교생활 전체가 그 준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쁜 학점을 받으면 재수강을 통해 고칠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엉망으로 해 놓으면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취한 행동은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고스란히 쌓여 여러분에 대한 평판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한번에 잘 하려는 태도가 몸에 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재수강에 익숙해진 사람이 똑같은 태도로 사회생활에 임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학점 고쳐달라고 교수 찾아가 구차한 얘기 늘어놓는 일은 더욱 더 나쁩니다. 자기가 취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사회에 나가 보면 알겠지만, 조그만 불이익도 참지 못하고 보달라고 애걸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자존심을 지켜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생존전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그런 의연한 태도를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참에 지금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랍니다.